

전주시, 미래먹거리산업 주도한다

전주의 새로운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는 3D프린팅과 드론 등 한국과 중국의 첨단 산업과 중소기업 산업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산업박람회와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4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특별전시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병지 전주시의회 의장, 정동영 국회의원과 정운천 국회의원, 시·도 의원, 안중호 한국국토정보공사(LX) 부사장, 정부 및 관련 협회·단체·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한·중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신성장동력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국제박람회에서는 '한·중 산업교류'를 주제로 총 198개 업체, 296개 부스가 참여해 △3D프린팅산업관, △드론산업관, △중소기업관 등 3개의 주제별 테마전시관으로

한·중 3D 프린팅 드론산업 박람회 개막 198개 업체·296개 부스 참가 전시 진행

나눠 전시가 진행된다.

먼저, 3D프린팅 전시관에서는 3D프린팅 관련 기업들의 제품 소개는 물론, 3D모델링된 피규어와 생활용품, 기타 아이템 등을 3D프린터로 출력해 심사·평가를 통해 독특하고 창의적인 캐릭터와 아이디어를 선정해 시상하는 '3D프린팅 디자인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드론 전시관에서는 관련기업의 제품 전시와 함께, 드론을 탄소복합재 보호구조로 감싸 축구공으로 만들어 경기를 진행하는 신개념 ICT 스포츠산업인 '드론축구' 시범경기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또한 기존 드론 레이싱대회와 달리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즐기는 대중

적이고 체험위주의 드론미션 대회인 '드론챌린지 대회'가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누어 진행, 다수의 쿼드콥터 드론을 프로그램 제어를 통해 퍼포먼스를 구현하는 '드론 군집비행(덴쇼쇼)'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이번 박람회에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와 각 분야별 투자·기술·펀드 거래상담 및 바이어 상담회, 신기술발표회 등 각종 포럼과 컨퍼런스, 비즈니스 쇼케이스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한·중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유용한 신지식·기술정보 상호교류 등 비즈니스 창출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번 박람회에서는 뛰어난 공간정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주시 무인비행장치(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스페셜관과 최근 산업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VR(가상현실)체험관도 마련됐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3D프린팅과 드론 등 세계 신성장산업 시장과 중소기업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함께하는 국제산업박람회를 전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중 국가 및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전주시 신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 신성장동력 미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아이들은 괜찮아요?” 지난 4일 오전 10시21분께 예술제 행사가 진행중이던 군산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 15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주운 체크카드 사용 40대 검거

남원경찰서는 지난 4일 주운 체크카드를 마구잡이로 사용한 회사원 박모(46, 여)씨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 10월 18일 남원시 동충동소재 한의원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놓고 간 체크카드를 습득, 마트와 음식점 등 5회에 걸쳐 96만원 상당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생 전주 보건소 벤치마킹 방문

국내 15개 시·군 보건소 공무원들이 전주 보건정책을 배우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지난 4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생들이 이날 보건소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전주 시보건소를 방문, 전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보건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건소 내 시설들을 견학했다.

제주서귀포보건소 등 전국 15개 시·군 보건소 공무원들로 구성된 교수와 교육생 25명은 이날 100세 경로당 건강관리사업과 지역사회 재활보건의사업 등 전주시의 보건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주시보건소와 평화보건지소 내 시설들을 관심 있게 둘러봤다.

교육에 참가한 한 교육생은 “지역 보건소로 돌아가면 전주시의 보건정책 사업을 벤치마킹해 우리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보건사업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이달의 시내버스 친절기사 성진여객 이희철씨 등 12명 시장 표창

전주시가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친절기사를 선정해 시장표창을 수여했다. 전주시는 지난 4일 전시장에서 이달의 시내버스 친절기사 시상식을 열고 이희철·이천수·이희열(성진여객), 이종원·모한중·정현진(전일여객), 유태용(제일여객), 민형근·홍승우·유기봉·김중희(호남고속), 배성권(시민) 등 친절기사 12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시는 시내버스 운전원의 사기진작과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월 5명 내외의 시내버스 친절기사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표창을 받은 기사들은 시민들의 추천과 제보, 검증 등을 통해 선정된 8·9월의 시내버스 친절기사들이다.

특히 전일여객 모한중 친절기사는 깨끗한 차량관리는 물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리는 승객을 도와주며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등 평소 안전운행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친절기사 선정을 위해 109명의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의 평가·추천 및 시민이 직접 제보한 사연을 종합해 8·9월중 친절기사로 총 67명의 운전기사를 추천 받

았다. 이후, '친절기사 선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17명의 친절기사 최종 후보를 선발했으며, 검증단을 구성해 후보로 추천된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직접 탑승·감증해 최종 12명을 친절기사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내버스 친절기사 표창시상식 행사를 매달 직접 챙겨 수여하고 있으며, 표창수여식 후에는 친절기사 운전원 및 가족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또 시내버스 운전원 근로여건 개선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해 내년 2월 목표로 △입2교대제 도입 △운행노선 고정(단독)배차 △노선개편 등 시내버스 운전원과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버스행정을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친절기사 선정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운행으로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버스타기 즐거운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재심 무죄... 검찰 항소 포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 판결에서 1심 무죄선고와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를 종합한 결과와 항소제기로 피고인들에게 미칠 또 다른 고통 등을 참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진정 어린 위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사과했는데 반성과 사과를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무엇을 잘못하고 반성했는

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의 반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갑갑 수사한 경찰은 물론 사법부 차원에서도 입장 표명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지난달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 임명선, 강인구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경찰, 뺑소니 검거율 '100%'

단계별 시스템 구축 성과

전북지방경찰청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뺑소니 검거율 100%를 달성했다.

전북경찰청은 뺑소니사고 발생 시 초동수사부터 범인검거까지 단계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과 평상시 자동차 부품 및 정비업소와 부품업체 등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뺑소니 수사에 적극 활용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한 전국 최초로 중요 뺑소니 발생 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는 뺑소니 전담 관역수사대를 구성했다. 특히 중요 뺑소니범의 용의차량 특징을 교통방성과 도로전광판에 공개수배하는 용의차량 경보시스템도 함께 구축해 큰 성과를 거뒀다.

김민근 기자

경찰의 이러한 노력은 작년 317건의 뺑소니사고 중 294건(검거율 92.7%)을 검거했던 지난해에 비해 검거율 100%라는 진일보한 결과를 가져왔다.

전북에서 벌어지는 뺑소니 원인은 음주운전이 37건(15.2%)으로 가장 많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17건(7%), 무면허 운전 15건(6.1%)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김재원 청장은 "뺑소니 교통사고 검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뺑소니 교통사고는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도민들께서도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정치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에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후원금이란?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하세요

기탁방법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POINT

1천원

MBC 아나운서 박민선